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으로 본 성 정체성

이 미 립*

1. 여성에게 있어 ‘방’의 의미
2. 가족간의 소통단절과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성소외
3.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의 상징성
4. 場所愛好(topophilia)와 일탈 행위
5. 결론

초록

본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탐색을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의 상징을 통해 살핀 글이다. 주로 사적 영역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주택에 대한 아이덴티티감을 보면 자아의 반영이자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들은 의사소통 단절과 남편의 무관심과 무례함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소외와 고독을 표출하고 있다. 실내장식과 방 꾸미기로서의 장소애적 집착은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가정에서 무의미한 일상을 극복하려는 시도이지만 ‘무덤’으로 묘사되며 ‘촛불’ ‘말린꽃’ ‘연필’ ‘담배’ ‘그림액자’ ‘빨래 건조대’ ‘책상’ 등의 가내물품은 현대여성의 위기감과 불안정함을 상징한다. 특히 ‘책상’은 자아정체성 탐색의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을 찾지 못한 여성들은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글쓰기, 다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 및 간음, 외도 등의 일탈에 이른다. 또한 산책, 가출, 외출, 여행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장소애호와 일탈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안전함과 동일성을 향한 욕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향한 욕망 사이의 긴장이 성립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형태와 맞닿고 있다.

* 원주대 교양과 조교수

1. 여성에게 있어 ‘방’의 의미

현대사회는 점점 분업화, 다양화되고 글로벌화(globalization)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에 따라 다원화¹⁾되는 소비사회가 형성되면서 현대인은 인간소외와 비정한 도시적 삶을 체험한다. 백화점과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교육을 받은 이 시대의 자의식 강한 여성들은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중산층 가정이 형성되고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휴머니티의 황폐화는 여성에게 장소애적 집착과 가정에서의 일탈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1970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였다면, 정보화 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 대량소비의 탈피, 차별화, 세분화, 분산화 및 지방분권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산업사회의 반대방향으로 전개²⁾되고 있다. 본고는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여성의 삶을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에 비해 전문화와 분화가 덜 되어 있고 가정과 가족관계의 사사로운 관계망 속에 존재³⁾하는 여성은 場所愛好(topophilia)가 강하므로 집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분석도구⁴⁾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방’은 작가에게 공간적 상상력을 부여함으로써 생활공간으로서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는 메타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 여성은 ‘규방’ ‘내방’이라는 공간 속에 사회와 유리되어 간헐 채 현모양처, 요조숙녀를 강요당하고 婦德이니 三從之道니 男尊女卑, 女必從夫니 하여 봉건적 요소가 많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정절 이데올로기와 순결 이데올로기를

1) 진성자 외, 『글로벌시대의 컨슈머리즘』(나남, 1999) p.11.

2) 위의 책, p.14.

3) 리타 펠스키·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43.

4)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민음사, 1990), pp.108~109.

의미하는 정숙한 양치와 희생적인 어머니상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여성들은 인내, 감성, 무한한 자기희생을 해야만 했다.

안방은 여성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거처했던 음의 공간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은 주생활 영역이 안채, 안방, 건넌방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안방은 학문탐구나 예술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사교장소이기보다는 가족의 의식주를 전담하는 가정의 중심지로서 의류와 침구류의 보관을 위한 수납용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거기에 비해 주로 남쪽으로 향해 있는 사랑방은 주인의 정신세계, 교양, 지식, 가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기거와 침식외에 독서, 사색, 접객, 휴식, 예술 등 많은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순하며 기품 있는 문방가구와 소품들로 절제하여 실내장식을 하지 않았다.⁵⁾ 창조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초월성은 對自인 남성의 영역이고 普遍內在(사회, 예의범절, 역할정의)는 卽自인 여성의 영역으로 생활에서의 주거의 위치나 분위기도 차별화되었다.

500파운드의 수입과 자기 혼자만의 방을 갖게 된다면, 여성들이 가족 모두의 거실을 잠시 떠나 인간을 본질에 관련시키고 하늘, 나무와 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볼 수 있다면 기회는 찾아오게 될 것⁶⁾이라는 절규는 가정 안에서 주거에 대한 여성의 절실함을 말해준다. 즉 '방'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생활과 의식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유교이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현대사회에 와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의 아이덴티티는 주로 '실내장식'에 반영되는 반면 외부 즉 훨씬 가시적인 공적 공간은 직분과 역할, 책임 그리고 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적 활동이 더 많은 여성들의 주택에 대한 아이덴티티감을 보면, 여성들은 주택을 자아의 반영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다⁷⁾는 것이다.

5)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열화당, 1988), pp.144~150 참조.

6) 버지니아 울프, 『자기 혼자만의 방』, 『여성의 권리』(문학과지성사, 1981), p.354.

7) SETHA M. LOW · ERVE CHAMBERS 편저, 주거문화연구회 역, 『주거 · 문화 · 디자인』(신광, 1994), p.224.

플레이저에 의하면 폐쇄적인 방은 처녀성을 상징하고 교통부제를 의미⁸⁾하며, 남편으로부터 타자화된 중산층 가정주부들에게는 고독과 맞닿은 소외의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과 일에서 돌아와 절대군주로서 군림하려는 안락한 공간을 원하는 남편과 무의미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막고자 안식의 방을 마련하려는 아내의 장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감금되고 유폐된 여성의 방은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외부와 차단된 장소이다. 본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대성(modernity)과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성의 방과 가내불품의 메타포화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2. 가족간의 소통단절과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성소외

현대사회는 파편화, 익명성, 획일주의, 상품화에 대한 물신화를 낳고 있다. 진정한 사랑의 부재와 의사소통⁹⁾의 단절은 무관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나타나고 현대인은 안락하게 자신을 누일 한 평의 공간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배회한다.

강석경의 『숲속의 방』은 한 여대생이 안주의 방을 찾지 못해 자살하는 과정을 언니 미양의 관점으로 그린 성장소설이다. 미양은 은행을 다니다가 결혼을 앞두고 사표를 낸 후 소양이 휴학한 것을 알게 되자 동생에게 관심을 갖는다. 세 자매간에 대화가 단절된 것은 삼층집으로 이사와 각자의 방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 현실적인 의대생 헤양과, 기성세대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미양, 소양의 친구들은 모두 입사에 성공하는 데 비

8) 이승훈, 『문학상징사전』(고려원, 1995), p.198.

9)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간단한 몸짓이나 표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음성신호나 언어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감성이나 의사의 상호전달 및 이해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 언어 몸짓 등의 외적 표현(external expression)의 수단들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없이 내적 정합성(internal coherence)이 유지돼야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해 감성적이고 결벽적인 소양은 노동운동 현장, 종로통의 술집, 씨클룸, 가정 내의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의 방을 찾지 못한다. 퇴물유한계급인 할머니, 경제논리로 자식을 판단하려는 아버지, 잔정 없는 어머니 등 속물근성이 가득한 가정을 싫어하는 소양은 가족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자신을 차단한다.

또한 각자의 삶에 바쁜 자매들,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운동권 친구와 방탕하고 쾌락적인 종로통 친구, 학생에게 무관심한 교수 등 타인을 통한 정체성의 실체를 확인 받지 못한다. 소양은 '내 방의 땅 이외에는 복도마루도 맨발로 밟고 싶지 않아'라고 할 정도로 가정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에 몰두한다. 부모와, 자매와, 친구와, 교수와, 남자친구와의 진정한 대화가 단절된 현실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는 소양의 탈사회화(de-socialization)¹⁰⁾가 이뤄진다.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소양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된 냉랭한 가정과 숲속의 미로를 헤매다가 자살하고 만다. 이런 사실은 부모, 형제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조건은 사회적으로 남성은 주체(대자)로, 여성은 객체(즉자) 즉 '대상화된 타자, 역사의 타자'¹¹⁾로 불렸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가정주부의 일상을 날카롭게 파헤친 박완서의 「닭은 방들」에서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닭장 같은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중산층 주부의 일상을 통해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친정의 눈치를 보는 남편을 오랫동안 처가살이시킨 후 18평 아파트를 장만하여 독립을 하게 된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를 보아주던 남편에게 말주변을 의식하게 되면서부

10) 예술과 문학의 탈사회화는 도피라고 하는 항상 반복되는 모티프, 즉 '순수한' 혹은 '적나라한' 존재라는 가공의 상태에서 도달하기 위하여 파국적이라고 느껴지는 사회를 방기하는 모티프를 만들어 낸다. 에른스트 피셔, 한철희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돌베개, 1984), p.122.

11) 시몬느 드 보부아르, 강명희 역, 『제2의 성』(하서, 1996), p.486 ; 팰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263 ; 리타 켈스키, 앞의 책, p.73 참조.

터 나는 남편이 어려워진다. 콩알만한 렌즈가 달린 현관문으로 방문객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하는 아파트 생활은 아파트 살인범으로 남편을 오히려 하고 남편의 퇴근을 무서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내 이런 터무니없는 무서움증을 남편에게 고백하고 현관문에서 그 콩알만한 유리조각을 떼어버리도록 부탁하고 싶었으나 그런 얘기를 남편이 기분 안 좋게 할 자신이 없었다. 그이에게 나를 이해시킬만한 말주변이 나에게 없었다. 그이가 부드럽고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여주던 시절, 우리 사이엔 말 주변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이와 나 사이에 말주변의 필요성을 다급하게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내 불안과 초조는 비롯됐다.¹²⁾

‘척하면 척하고 빠르게 어떤 등식을 찾아내는 데 능한’ 남편은 불안하고 초조한 아파트 생활을 상담하는 나에게 ‘홍, 노이로제군, 누가 현대인 아니랄까봐’라고 일축한다.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남편과의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담론은 감성적인 아내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정신병적 증후군에 빠지게 한다.

중산층 부부의 일상을 그린 김채원의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와 강석경의 「물속의 방」에서도 상식적이고 무례한 남편과의 사랑의 고갈, 불임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불모성을 그리고 있다.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의 휘자는 40대 주부로서 편지를 주고받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한 살 아래 동생과 고아로 자란 휘자는 아름다움과 청춘과 사랑을 기다리며 가난의 탈출을 꿈꾸며 남편과 결혼했고, 특별한 자매애로 남편에게 편잔을 듣는다. 휘자는 남편이 발길질하여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후 유산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동생 역시 자신의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어 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로 옆모습으로만 묘사되는 남편은 아내와의 진정한 대화를 거부하고 그녀를 무시하며 관습으로 대할 뿐이다. 무례하고 비정하며 눈앞에

12) 박완서, 「닭은 방들」(『월간중앙』, 1974.6), p.375.

꽃이 있어도 아름다움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이 휘자는 어렵고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역겨워 하며 오랜 세월 낮이 선 채 살아왔다고 느낀다. 다리를 저는 남편과 고아였던 자신과의 불구적 결합으로 우울함이 깃드는 결혼생활을 체념하고 남편과의 공감을 이루기보다는 여동생과의 편지를 통해 대화를 하는 자매애적 유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조차도 어려워하는 회자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의 무덤덤한 결혼생활에서, 여자들에게 “매일매일의 현실”이란 남편의 가학증을 피학 증적으로 견뎌 나가는 현실¹³⁾이다.

「물속의 방」의 회수는 중산층 가정의 두 아이의 엄마이다. 가정을 위해 사는지 직장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는 남편은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 집안의 커튼을 회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떼어가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자기 멋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퍼붓는 정사, 중국집에 주문하듯 자기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는 일방적인 대화, 아픈 딸아이에게도 냉정함을 보이는, 일이 우선인 남편, 무료한 아파트 생활과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대하는 위악적이고 속물적인 친구 순옥 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회수는 사랑도 기다림도 애국도 권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2평의 안온한 가정 내에서 회수는 허탈감과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낀다.

김채원과 강석경의 소설엔 중산층 가정주부의 자의식과 남성의 부재와 사랑의 결핍 및 자매애적 유대감이 나타난다. 남편 혹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중산층 주부에게 결혼생활이란 행복과 안락의 자리가 아니라 무의미한 상실의 자리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소외된 삶과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위치는 가정 내의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랑의 탈남만성과 삶을 일체의 환상 없이 똑바로 응시하는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에서는 남편의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

13) 이종영, 『가학증·타자성·자유』(백의, 1996) p.73.

다. 전문대 비서과를 나와 조그만 오피상을 다니다가 결혼한 아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불임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부부생활에서 외출도, 타인의 방문도 좋아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내는 어느 날 외도의 흔적을 남긴다. 아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으며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여겼던 남편은 쓰라린 배신감으로 아내를 폐기해 버린다. 남편들은 자기들이 아내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그들 중의 상당수는 심지어 자신들이 아내를 가장 아껴주고 있다고 생각¹⁴⁾한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남편과 자의식이 강한 아내,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과 내면의식을 모른 채 그녀를 사랑했으며 그녀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착오와 불임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부생활을 비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아내는 늘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자신 없어 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며 책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자기 식대로 왜곡시켜 알고 있다고 남편은 진단한다. 여자는 타인이 아니라 타자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상호적 교환, 진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¹⁵⁾하다는 것이다. 읽기도 전에 신문의 경제면을 오린 아내에게 화내면서도 슈크림을 사오는 남편과 잠에 취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 이들 사이에 비극적 파국이 암시된다. 인생은 필요한 것을 갖춰 나가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의 소통 단절은 성행위로 사랑을 확인하곤 하지만 불안정하고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게 말라 버려요!”라고 할 정도로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이다. 그리고 남편은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의 또 하나의 중산층 가정주부인 옆집 여자는 집안 가득 물건을 채우고 수영이랑 마사지를 다니며 아이들을 방치한 채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외국으로 출장간 남편과의 별거로 그녀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을 다니며 아내와 함께 칼국수집, 쇼핑센터 지하의 찜밥

14) 위의 책, p.73.

15)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민음사, 2000), p.60.

집, 주말농장을 돌아다닌다. 짙은 화장을 하고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그녀는 외간남자를 만나면서 아내를 탈선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녀의 빈번한 외출도 신뢰와 사랑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남편의 시점으로 부부 사이의 소통 단절을 그린 소설로 은희경의 「빈처」가 있다. 뭘 쓴다는 일이 어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책을 들추는 일을 본 적이 없는 아내가 일기를 쓰고 술을 마시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의 상자」의 남편과 다를 바가 없다. 술을 마시고 늘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애태우거나 마음 졸이는 사람이 없으므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상투적인 부부간의 대화법과 이젠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남편은 한때 그녀를 얻기 위해 세 명의 연적과 투쟁한 후이나 결혼할 수 있었다. 은희경 소설에서의 여성은 대체로 외적 의사소통¹⁶⁾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해와 갈등을 야기한다.

‘~습니다’형의 고백체 형식으로 쓰여진 김형경의 「담배 피우는 여자」에서도 옆집 여인을 관찰하는 나를 통해 가정주부의 고독을 그리고 있다. 주부인 나는 어린 시절 소외나 단절감을 느낄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곤 했는데 결혼을 한 지금도 그 버릇은 계속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제가 혼자말을 하고 있더군요. 쌀을 안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머리를 감다가도, 혼자 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리곤 합니다. 들을 대상이 없어서 되돌아오지 않는, 중요하지 않아 허공에서 흩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빨리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버릇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건, 나이가 주는 미덕일 겁니다. 적어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그런 버릇을 내보이지 않지요.¹⁷⁾

16) 외적 의사소통(external communication)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말,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내적 의사소통(internal communication)이란 혼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17) 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문학사상사, 1996), p.147.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술집이며 흥등의 거리를 방황하고, 집안에만 있는 여자들은 베란다에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기껏 담배 한 대를 몰래 피운 후 까다로운 남편과 아이의 반찬을 따로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 주부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편들은 ‘밥 먹자’ ‘커피 한 잔 줄래?’ ‘자자’ 정도의 세 마디뿐이고 그 사이에 설거지 하고 커피를 타고 딸아이의 세수를 도와주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아내는 늘 집안에 있는 가구와 별반 다르지 않고 남편은 생활비를 건네 주는 은행 구좌일 뿐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부부 사이, 혹은 가족간의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가족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숲속의 방」과 「닭은 방들」 「아내의 상자」 「담배 피우는 여자」에서 나타나는 조울증, 편집증, 노이로제, 강박관념 등의 정신질환은 일차적으로 기초적 신뢰에 금이 갔을 경우¹⁸⁾에 돌입하며, 성차별이나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¹⁹⁾이 위주가 되는 문화권과 도덕관념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 때문이기도 하다. 남성일 때는 결코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을 경미한 일탈 행위로 치부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낙인²⁰⁾찍히는 것이다. 「숲속의 방」의 미혼여성인 소양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자유인으로서의 남편에게 가정주부는 저항 한번 못해 보고 일방적으로 당하므로 장소애호와 또 다른 일탈적 행위로 돌과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여성, 감성, 비정상에 대한 남성, 이성, 정상이라는 문화적 專橫으로서의 타자적 경향이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18)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새물결, 1997), p.15.

19)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서적인 면을 드러내며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며, 얼굴 표정, 손짓, 몸의 움직임, 몸의 향기 등 언어 이외의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20) 김동일 외, 『성의 사회학』(문음사, 1991), p.349.

3.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의 상징성

「숲속의 방」의 세 자매의 각기 다른 특성은 각각의 방에서 나타난다. 언니 미양의 방은 '피아노와 굴빛 스탠드가 있는 방'으로 윤택하고 안락한 중산층 집안의 평범한 만딸의 의식을 반영하며, '해부도와 의학원서들, 장식이라곤 없는' 혜양의 방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의식을 가진 의대생의 일상을 반영하는 한편 불문학도인 소양의 방은 현실도피적이고 장식적이며 심미주의적이다.

방엔 십여 개의 촛불이 작은 흔들처럼 피어있고 천장에 달린 꽃그립자가 성에처럼 깔려 있었다. 굴 같은 방으로 한발 걸어 들어가자 벽 가까이서 촛불을 등지고 누워있는 소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맡엔 박쥐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까만 우산이었다. 방 안에서 까만 우산을 쓰고 누워 있는 모습은 괴이하기까지 했으나 촛불 때문인지 신비하게도 보였다.²¹⁾

양초와 우산으로 대립되는 가내물품은 밝음과 어둠, 개방과 폐쇄, 조화와 고독 등의 양가감정을 가진 20대 젊은이의 혼돈과 충동의 부조화를 반영한다. 소양은 1980년대의 운동권 광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밀실에서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양초'와 '말린 꽃'과 '비틀즈 패널'과 '전축' 등의 심미적 취향은 여가와 평범한 일들이 주어지는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하며 심미주의자는 삶을 투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경거리²²⁾로 다룬다. 삶에 대한 심미적 접근은 명상적인 것이지 결코 활동적인 것이 될 수 없²³⁾으므로 소양은 회의하며 학생운동에 빠져들지 못한다. 생활적으로는 안정된 부잣집 딸이면서 자유롭고 풍부한 개성을 지닌 소양이 철저하게 운동권 학생이 되기엔 정서

21) 강석경, 『숲속의 방』(민음사, 1986), p.78.

22) R. V. Johnson, 이상욱 역, 『심미주의』(서울대출판부, 1979), p.37.

23) 위의 책, p.34.

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양은 ‘이 방은 아니야. 피 흘리는 작은 양을 잠재우고 놀라 뛰는 가슴을 쉬게 하고 내 푸른 단도 날까지 어루만져 주는 방이 필요해’라고 절규하며 광기를 드러낸다.

속물 근성과 경제 논리로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와 집을 혐오하여 ‘내 방의 땅 이외에는 복도마루도 맨발로 밟고 싶지 않은’ 소양에게 두 공간 사이에 있는 문지방은 俗과 聖의 두 존재 양식의 거리를 가리키며²⁴⁾ 소양은 문밖에 존재하는 俗의 세계와도 타협하지 못한다.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된 방인 소양의 방은 불안감을 자아내며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경고와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닭은 방들」의 아파트 가정에서는 주부들을 일률적으로 방꾸미기와 실내장식에 몰입하게 한다. 자신의 집을 갖게 된 나는 앞집 여자인 철이 엄마네의 동화 속에 나오는 방을 보고 감동하며 그 여자네 방처럼 꾸민다.

방은 빨리 꾸며졌다. (중략) 나는 그 여자네 방보다 더 멋있게 꾸미려고 별렀으나 꾸며놓고 보니 가구의 배치나 카텐의 빛깔까지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내가 그 여자네 방에서 받은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내 기호가 어느 틈에 그 여자를 흉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울케도 부러워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신통해할 만큼 예쁜 방이 꾸며졌다. (중략) 이렇게 나나 철이 엄마나 딸 방 여자들이나 남편보다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겨우 남편을 위한 하루하루를 잃어버렸다. 내 남편의 18평짜리 아파트를 위해 7년의 세월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상실했듯이.²⁵⁾

그러나 곧 장식과 요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마실을 다니면서 비슷한 여편네들이 닭은 방에서 똑같은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비참해진다. 닭은 방들을 보며 나는 권태로움과 공허

24) M.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한길사, 1988), p.58.

25) 박완서, 「닭은 방들」(『월간중앙』, 1974.6), pp.374~376.

함과 맥빠져 있음을 철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똑같은 냉장고와 피아노,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장식된 아파트 생활은 가정주부들을 심심하고 따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낙인찍기(branding)는 소비된 대상(상품 또는 상표) 속에서 일종의 안전함과 동일성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욕망을 향한 욕망 사이의 제거될 수 없는 긴장²⁶⁾을 성립하게 하며 색다른 음모로 이끈다.

김채원의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의 배경은 4층집이다. 일층에는 현관과 부엌과 식탁이 놓인 조그만 부엌방이 있고 현관에서 몇 계단 밑으로 내려서면 마루방이 있고, 이층에는 성냥갑 같은 방 한 개와 욕실과 베란다가 있고 그곳에서 또 몇 개의 층계를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는 집이다. 유일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생에게 편지 쓰는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에 골몰하며 휘자는 마루방의 소도구들을 살펴본다. 청색의 방이 있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고 책꽂이엔 책이 꽂혀 있으며 상위에 깔아놓은 칙칙한 목 레이스보와 전기스탠드와 탁자 위 질그릇 꽃병에는 말린꽃이 꽂혀있다. 중산층 가정의 장식이 적당히 갖추어진 이 방에 책상이 놓이면 왠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거기에 비해 입을 굳게 다문 남편의 방은 방에 비해 넘쳐나도록 큰 책상과 그 위에 라디오와 지구의가 놓여 있고 아무 장식이 없는 방이다. 아이도, 대화도 없는 가정 내에서 휘자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쓸 공간을 위해 그 무거운 책상을 들고 다닌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 생각으로는 책상이 있어도 좋을 듯한 공간이 책상이 내려와 놓이면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앞 뒤 이가 안 맞고 방의 균형이 깨어지며 우스꽝스럽게 되었다. 휘자로서는 어떻게든 책상을 마루방에 놓고 싶었다. 이곳에 앉아서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아니 편지 쓸 곳은 식탁이나 4층방도 괜찮긴 하리라. 단지 그녀가 있을 곳, 그녀의 몸이 꼭 알맞게 들어갈 곳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조금의 불협화음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녀

26) 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편, 『우리 시대의 욕망 읽기』(문예출판사, 1999), p.41.

에게 가장 잘 맞는 공간, 그녀는 마루밭 한 구석에 선 채로, 책꽂이의 위치를 바꾸고 그 자리에 책상을 놓는 것이 어 떨까 궁리했다. 바꾸어진 위치를 청사 진처럼 떠보기에 그녀는 고심했다.²⁷⁾

휘자는 책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존재의미를 찾으려 인간힘을 쓴다. 삶의 무게처럼 버거운 책상을 세 번이나 옮겨야 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이란 꼭 행복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삶을 받아드린다. 장식적인 마루방과 장식이 없는 남편방, 안정되게 놓여있는 남편의 큰 책상과 위치를 찾지 못한 자신의 작은 책상에서 일상과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본다’로 시작해서 ‘오늘 그녀의 방은 없어졌다’로 끝나는 「아내의 상자」에는 수많은 상징과 의미를 포함하는 공간적 배경과 가내물품이 묘사되고 있다. 남편의 초인종을 듣지 못할 정도로 공벌레처럼 웅크리고 잠만 자는 자폐적인 아내가 사는 곳은 신도시이다. 신도시 베드타운의 출현은 절박한 주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비상한 긴급처방의 공간적 산물로 급조해서 만든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짙은 개발²⁸⁾이었다. 독자적인 행정조직이나 업무 기능 없이 잠자리만 제공하는 침상도시의 한계를 지닌 신도시에서의 생활은 아내의 성격과 일상을 대변한다. 아파트이외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과 음식점만 들어찬 신도시야말로 ‘무의식적 충동을 통해 허위의 욕망을 부추키고 이를 더 욕망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욕망의 에너지가 창조적 자아실현에 투여되는 것을 가차없이 차단하는²⁹⁾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표상한다. 잠만 자는 아내와 쇼핑과 식도락, 불륜을 위해 자주 외출하는 옆집 여자는 신도시의 생활 환경과 소비형태의 결과이다.

아내의 방에는 많지 않은 가구들이 놓여 있다.

27) 김채원,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초록빛 모자』(나남, 1984), p.294.

28) 하성규 외, 『집-기쁨과 고통의 뿌리』(비봉출판사, 1993), pp.189~193.

29)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한길사, 1999), p.24.

푸른빛이 감도는 벽지, 벽을 향해 놓여진 독일식 책상과 창가의 안락의자, 그 사이로 알 수 없는 희미한 향기가 떠다닌다. 그리고 상자들. 아내는 상자들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상자에는 그녀가 한계질 내내 손가락을 찢려가며 십자 수를 놓은 탁자보가 들어 있고 어떤 상자에는 편지뭉치가 들어있다. (중략) 하지만 아내는 이제 여기 없다. 아내의 독일식 책상의 뚜껑이 완강하게 닫혀 버린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고무지우개가 달린 아내의 노란색 연필, 그것이 어둠 속에 영원히 매몰되었듯이, 아내라는 존재는 폐기되었다.³⁰⁾

독일식 책상과 노란색 연필은 중산층 주부의 자의식이며 자기 정체성 탐색의 상징물로 내적 의사소통의 한 방편이자 점점 소모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도구이다. 그녀의 상자에는 편지뭉치나 탁자보, 하얀 배넛저고리, 조개껍데기 목걸이와 같이 교환가치가 없는 물건들로 가득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온했던 기억과 추억들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응집되어 있으며 기억을 넘어서는 것의 기억이 되며 요나콤플렉스적인 내밀함에 대한 욕구³¹⁾를 뜻하는 상자의 중요성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

늘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자는 아내는 ‘무덤처럼’ 편안하다고 했고, 방부제 향이 희미하게 떠다니는 아내의 방이 ‘무덤 같다고’ 남편은 생각한다. 생명력이 증발된 상자와 책상, 의자, 박제된 포푸리 화환은 생산적이지 못한 아내의 불임상태와 닮아 있다. 신도시의 방 세 개 짜리 아파트로 이사왔을 때 자기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삭막하지 않은 생활을 기대한 아내는 숲 속을 가보고 싶어했으나 그곳에도 ‘무덤만’이 있을 뿐이다. ‘무덤’은 기초적 신뢰나 공감, 혹은 사랑이 결핍된 결혼생활과 획일주의와 규격에 적응하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들거나 광기와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여성의 비극적인 공간이다.

30) 은희경, 「아내의 상자」(문학사상사, 1998), pp.23~24.

31)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앞의 책, p.217.

가구라고는 책상과 안락의자밖에 없는 아내의 방에 비해 옆집 여자의 방은 물건으로 가득차 있다.

현관에서부터 그래요. 우산꽃이에다 편지꽃이, 열쇠 거는 고리……거실에도 소파는 소파대로 스톨과 흔들의자까지 있고, 코너장, 흙 바, 뭐가 뭔지 모르게 가구로 꽉 차 있어요. 보온밥통에까지 온갖 덮개를 씌워 놓았고 벽에도 빈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등공예품, 빵꽃, 지점토 인형, 온갖 취미 강좌에 다 다녀나 봐요.³²⁾

옆집여자의 집꾸미기는 결국 빈곳을 남기지 않은 후에야 그녀를 거리로 내모는 역할을 한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설득 당하기 쉬운 성격 때문에 쾌락의 상업화에 기초한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소비 이데올로기의 이상적인 주체이자 전형적인 소비자³³⁾로 남는다. 옆집여자의 쇼핑 행위와 쾌락적 추구는 ‘가정이라는 소우주에 갇혀 시지포스의 노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야 하는³⁴⁾ 여성의 허전함과 결핍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강석경의 「물속의 방」에도 집에 대해 자세하게 그려진다. 중산층 주부인 희수의 거실엔 두 개의 스피커 의자와 월간 여성지와 텔레비전과 비디오, 엠프와 스피커가 장치돼 있고 레코드가 빼곡히 꽂혀 있으며 장식장 가운데 공간엔 말린 장미가 꽂힌 도자기와 병 모양의 입상 테라코타 한 점이 있다. 맞은 편 벽엔 삼십만 원을 주고 산 동양화가 있어 중산층의 그럴 듯한 취미를 보여주는 방이다. 희수는 세끼 밥짓는 빛 바랜 의무, 현실적 책임이 입을 벌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을 무리해서 샀다.

지금 희수는 방이라 부를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떠 있는 것 같다. 섬이라고

32) 은희경, 앞의 글, p.35.

33) 리타 펠스키, 앞의 책, p.107.

34)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편,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7), p.21.

해도 좋다. 아니 높다. 무덤이다. 남편이 없을 땐 광고 액자가 한 벽면을 채운 이 방은 무덤처럼 무겁고 갑갑하다. 남편의 부재가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남편이 없음으로써 방의 참모습을 마주 본달까. 그 어둠의 허공을 희수는 귀신처럼 떠돌면서 적요함을 건너리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단상들을 곱씹어 보는 것이다.³⁵⁾

중산층 가정주부의 공간은 이제 ‘섬’ ‘늪’ ‘무덤’으로 묘사된다. 그녀에게 결혼생활이란 ‘섬’처럼 단절과 고립으로, ‘늪’처럼 허우적대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실과 체념을, ‘무덤’처럼 소통단절의 침묵뿐인 압담한 죽음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남편의 존재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다.

자신을 가꾸듯이, 나만의 공간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것이 없으므로 무생물인 가구와 액자, 말린꽃과 책상에 자신을 투사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장소애에 빠지기도 한다. 생명력이 증발된 방안의 가구들과 박제된 말린꽃들, 그리고 사랑이 고갈된 방에서 주부들은 정체성을 잃고 고독과 맞닿는다. 「아내의 상자」와 「물속의 방」의 ‘무덤’은 현대사회에서의 죽음과 같은 여성의 삶을 표현한다.

「담배 피우는 여자」에서 꽃무늬가 예쁜 홈 드레스를 입고 레이스가 고운 앞치마를 두르고 빨래를 널곤 하는 옆집 여자는 행복한 중산층 주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왜 여성 잡지들에 나오는, 행복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시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뿐 아니라, 그 여인이 공들여 돌보던 화분들과, 무지개빛 바퀴가 달린 세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화초를 손질하다가, 베란다 너머로 시선이 마주치면 입 꼬리를 양쪽으로 당겨 올리며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³⁶⁾

옆집 여자는 담배를 피우는 일 때문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어느 날

35) 강석경, 「물속의 방」(『문학사상』, 1984.9), pp.119~120.

36) 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문학사상』, 1996), p.148.

베란다를 뛰어넘다가 죽는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이해 받지 못한 채 이웃에게도 버려지고 기댈 데라고는 담배뿐이었던 아내는 담배를 피울 때만 살아 있음을 느끼며 온전하게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아 있다는 걸 믿는다. 담배 한 대로 서글픔과 중압감, 배고픔, 추위에서 위로를 받는 그녀는 베란다의 버려진 짐승, 내내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짐승 같은 빨래 건조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의 ‘담배’와 ‘빨래 건조대’는 소외와 단절감을 지닌 가정주부의 소모되고 건조한 모습의 대체물이다. 그녀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공간은 베란다의 한 구석인데, 이곳은 은신처이자 피난처이며 적대적인 힘에서 방어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밀함의 몽상이 이루어지는 장소³⁷⁾이다. 「숲속의 방」의 ‘양초’와 「아내의 상자」의 노란색 ‘연필’과 「담배 피우는 여자」의 ‘담배’는 여성의 삶이 외롭게 소멸되거나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소모적인 것임을 상징하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아내들이 글을 쓸 때나 담배를 피울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의 양초, 연필, 담배 등의 상징적 기제는 여성의 소비 (consumption)적 행위와 함께 ‘소모’적인 타자의 삶을 반영한다.

여성들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고 일탈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방’꾸미기와 실내장식에 몰입한다. 양초와 말린꽃, 그림액자 그리고 책상 등의 가내물품은 여성의 성격이자 무드, 내적 의사소통, 표정, 몸짓을 대변하고 있다. ‘촛불’은 흰빛의 상승과 붉은 빛의 하강, 가치와 반가치가 싸우는 결투장³⁸⁾이며 고독하게 혼자서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탄다. 결코 함치려고 하지 않고 혼자 꿈꾸는 것, 나방이의 굴광성 (phototropisme)³⁹⁾처럼 불꽃에 몸을 던지는 속성을 가진 현대여성의 위기감과 불안감을 상징한다. 「말린꽃」 역시 여성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박제된 건조한 모습을, 비틀즈 패넬, 아를르의 고토 침실(「숲속의 방」)이나

37)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앞의 책, p.109.

38)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촛불의 미학』(문예출판사, 1975), p.15.

39) 위의 책, p.14.

청색의 방이 있는 그림(「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값비싼 액자(「물속의 방」) 등은 자기만의 방에 대한 절실함을 드러낸다.

특히 유난히 애착을 갖는 책상⁴⁰⁾은 외면당하는 아내들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상관물이다. 개인공간이나 책상을 갖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화장대로 대신하는 책상(「빈치」)이나, 간신히 얻게 된 자신의 방이나 독일식 책상(「아내의 상자」)은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이다. 남편과의 합일을 이루지 못한 주부는 무거운 책상을 여러번 옮기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공간을 찾는 것(「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이다. 책상서랍, 상자, 조개껍데기, 구석 등은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에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에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요나콤플렉스⁴¹⁾적 욕망으로서 「아내의 상자」나 「담배 피우는 여자」의 ‘공벌레처럼 웅크리거나’ ‘옷장 속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화가 단절된 남편과의 무의미한 일상에 대해 ‘자기만의 안주의 방’을 찾기 위한 집착이다.

이와 같이 집안의 가내물품 중 ‘액자’ ‘말린꽃’ ‘양초’ 등을 통한 실내장식적 행위는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 기제이며, ‘촛불’ ‘연필’ ‘담배’ ‘빨래건조대’ 등에서 표상되는 소비적 행위는 소모적이고 건조하며 메마른 여성의 일상을, ‘책상’을 통한 여성적 글쓰기 행위는 타자화된 여성의 자의식을 회복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場所愛好(topophilia)와 일탈 행위

현대소비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결핍은 그녀들로 하여금 장소애호와

40) ‘책상’으로 상징되는 여성적 글쓰기는 자기만영적 행위이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 그 자체라고 엘렌 식수는 말하고 있다.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 앞의 책, pp.158~159.

41)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앞의 책, p.15.

일탈⁴²⁾이라는 상반된 원리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만든다.

「숲속의 방」의 소양은 삼층집으로 이사와 자신의 방을 갖게 되면서부터 촛불, 말린꽃, 비틀즈 패널, 전축 등으로 방꾸미기를 통한 몽상으로서의 은신처, 피난처를 마련한다. 문지방 밖의 속물스러운 현실과 단절하고 자신에 침잠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운동 현장, 종로통의 디스코장, 생맥주집, 대학의 각종 씨클룸 등을 전전하다가 자아인식에 실패하고, 무거운 청춘을 탕진하기 위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대로 내려가 보려고 술집의 호스텔스가 된다.

「닭은 방들」의 나는 실내장식과 방꾸미기에 몰입하다가 아파트의 방들이 모두 닭아 있다고 생각하자 권태를 느낀다. 한낮의 계란이나 오이 팩으로 서로의 행복을 질투하며 이웃집 여자와 잡담이나 하는 나는 복권을 사서 일주일에 한번씩의 희열을 맛보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금방 시들해 버린다. 끔찍한 나의 권태로운 일상은 퇴근하는 남편과 쌍둥이 아이까지 미워지며 뭔가 저질러야겠다는, 꼭 저지르고 말리라는 음모를 계획한다.

그후에도 내 생활은 여전히 끔찍하게 따분했다. 나는 내 이웃의 무수한 닭은 방들이 끔찍했고 내 쌍둥이 아들을 구별 못하는 일이 끔찍했고 무엇보다도 한눈을 애꾸를 만들어 가지고 쿵알만한 유리 조각을 통해 퇴근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 끔찍했다. 천장에 달라붙은 20와트 형광등 불빛 밑에서 비인간적으로 창백하고 냉혹해 보여 자기 남편을 아파트 살인범으로 착각해야 하는 일이 끔찍했다. 내 생활에서 끔찍하지 않은 일은 철이엄마의 그 「짐승 같은 새끼」와 간음을 하고 말 것 같은 예감뿐이었다. 나는 그 예감을 사랑했다. 그 예감이 미칠 듯이 따분한 내 생활과 마찰하면서 일으키는 섬광 같은 불꽃을 사랑했다. 그 섬광을 통해 보는 일상적인 사물의 돌연한 빛깔을 사랑했다.⁴³⁾

42) 일탈(deviance)은 공동체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앤터니 기든스·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울유문화사, 1992), p.140.

그리하여 철이 엄마가 친정간 날 밤 철이 아빠와의 간음을 시도하지만 포마드와 담배 냄새와 파자마조차도 남편의 것과 같아 그의 섹스조차도 땀냄을 느낀다. 그녀의 의도는 자신을 ‘치녀처럼’ 느껴보고 싶은 새로운 탈출구이다.

「물속의 방」의 희수도 남편과 자식과 32평의 아파트에 적당히 중산층의 취미를 드러내는 값비싼 액자와 말린꽃을 장식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지만, 자기중심적인 남편과의 소통단절로 고절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치녀 시절의 밤거리 배회를 꿈꾸어 보지만 어느 새 자신이 온실에 길들여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산책이라는 소극적인 일탈에의 시도는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생활의 힘겨움과 무의미함을 제시한다.

「아내의 상자」의 집안에 주로 간혀 사는 아내와 옆집 여자에게서도 場所愛好와 일탈 과정이 나타난다. 아내는 남편이 보기에 무가치한 것들이 담긴 상자들과 독일식 책상, 노란색 연필을 소중히 여기며 잠으로 일과를 보낸다. 강박관념과 불임으로 열등감을 가진 그녀는 상식적인 남편과 일률적인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공벌레처럼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잠으로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만 평화로웠음을 제시한다. 자기식대로 아내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남편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내와의 소통 단절은 결국 그녀를 거리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아내를 외출시키는 옆집 여자를 밖으로 내모는 요인은 물질로 구현된 실내장식과 방꾸미기이다. 현관, 거실, 방안에 온갖 가구와 장식물로 채움으로써 그녀는 중산층 가정주부의 허전함과 남편의 부재를 메우려고 한다. 그리고 집안에 물건으로 가득차자 외출해서 쇼핑과 식도락을 즐기다가 결국 탈선한다. 새로운 상품에 의해 욕망을 꾸준히 자극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신과정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게 하는데,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심층의 안정된 관계로부터 벗

43) 박완서, 앞의 글, p.381.

어나 분열적 또는 자기애적 퇴행을 조장⁴⁴⁾한다. 즉 새로움을 향한 욕망이 「닭은 방들」의 「나」와 「아내의 상자」의 「아내」와 옆집여자를 간음과 외도 등의 탈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발적 의지의 옆집 여자에게 이끌려 수동적으로 외출을 시작한 아내도 타인과의 외도를 경험하고 남편에게 폐기당한다. 이러한 장소애적 침잠과 다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으로 인한 일탈은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 결말에 이른다.

「담배 피우는 여자」의 옆집 여자는 남편이 싫어하는 담배를 끊지 않으므로써 폭력을 당하는 굴욕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남편 몰래 혼외정사를 치르는 사람처럼 이웃집 거실 한 귀퉁이에 웅크린 자세로 담배를 피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을 모조리 거세당한 채 보잘 것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 옆집 여자는 웅크린 자세로 담배를 피울 때만이 위로를 받는다. 이러한 술, 담배, 다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 창작에로의 일탈 행위는 가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채 현대사회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여성의 고투인 것이다.

소설에서의 현대여성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규범과 제도, 관습에 항거하여 가출, 외출, 산책, 여행으로서의 소극적 저항을 표출하고 있으며, 술 마시기(「숲속의 방」 「빈처」), 담배 피우기(「숲속의 방」 「담배 피우는 여자」), 글쓰기(「아내의 상자」 「빈처」), 다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 꿈꾸기 및 외도(「닭은 방들」 「아내의 상자」)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심미적이고 내면적인 여성들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남성들에게 무관심하게 내몰리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탈된 행위를 하게 된다. 여성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제도와 관습과 상식으로 표상되는 남성과의 불행한 동거가 현대결혼생활의 일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44) 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편, 앞의 책, p.42.

5. 결론

이 글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탐색을 ‘여성의 방’과 가내물품의 상징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로 사적 영역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주택에 대한 아이덴티티감을 보면 자아의 반영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범람하는 가운데 파편화, 익명화, 획일주의, 상품화에 대한 물신화를 낳으며 진정한 사랑의 부재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온다. 「숲속의 방」의 소양은 속물적이고 개인적인 가족과 세상 밖과 단절한 채 자기혼자만의 방에 집착하지만 결국 안주의 방을 얻지 못하고 숲속의 미로를 헤매다가 자살한다. 주로 중산층 가정주부의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그린 「닭은 방들」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물속의 방」 「아내의 상자」 「담배 피우는 여자」 「빈 처」 등에서는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 단절과 남편의 무관심과 무례함으로 인한 정신 질환, 사랑의 부재 및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소외와 고독이 표출되고 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분석도구일 수 있는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숲속의 방」의 세 자매의 방에서도 방 주인의 의식과 가치관이 반영되며, 양초와 말린꽃, 액자 등 가내물품의 상징성을 통한 작중인물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남성과 사회로부터 유리된 여성들은 방꾸미기와 실내장식에 몰두하며 場所愛好(topophilia)를 갖는다. 중산층 가정의 분위기를 살린 ‘촛불’은 혼자 꿈꾸면서 불꽃에 몸을 던지는 나방이의 속성을 통한 현대 여성의 위기감과 불안을 표상하며, ‘말린꽃’과 ‘빨래건조대’는 여성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박제된 건조한 모습을 상징한다. 유난히 애착을 갖는 ‘책상’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아내들의 자아정체성 확인 수단이자 자의식의 표출이다. ‘언필’과 ‘담배’와 ‘양초’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삶이란 외롭게 소멸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소모적인 것임을, 여성의 방은 ‘무덤’으로 표현됨으로써 죽음, 잠과 같은 주부의 일상을 대변한다. 또한 아파트와

신도시라는 공간과 ‘웅크리거나 구석을 찾는’ 여성의 행동은 요나콤플렉스적 욕망으로서 안락과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한 결혼생활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여성의 방꾸미기와 실내장식에 대한 집착은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몸부림이자 안간힘이다. 그리고 모두가 일률적으로 닮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탈을 시도한다. 규범과 제도, 관습, 도덕관념에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은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글쓰기, 다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 꿈꾸기 및 간음, 외도의 결과를 낳는다. 심미적이고 내면적인 여성들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남성들에게 무관심하게 내몰리며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책, 가출, 외출, 여행으로서의 일탈 행위를 한다. 생산의 주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소비사회의 소모적 행위와 함께 정신적 피로로 지쳐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여성의 장소애호와 일탈적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안전함과 동일성을 향한 욕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향한 욕망 사이의 긴장이 성립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형태와 맞닿고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박완서, 「닮은 방들」, 『월간중앙』, 1974.6.
김채원,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초록빛 모자』, 나남, 1984.
강석경, 「물속의 방」, 『문학사상』, 1984.9.
_____, 『숲속의 방』, 민음사, 1986.
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 문학사상사, 1996.
은희경, 「아내의 상자」, 문학사상사, 1998.
_____, 「빈처」, 문학사상사, 1996.

<2차 자료>

-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1991.
-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88.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종영, 『가학성·타자성·자유』, 백의, 1996.
-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한길사, 1999.
- 전성자 외, 『글로벌시대의 컨슈머리즘』, 나남, 1999.
- 하성규 외, 『집-기쁨과 고통의 뿌리』, 비봉출판사, 1993.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편,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97.
-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편, 『우리 시대의 욕망 읽기』, 문예출판사, 1999.
-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촛불의 미학』, 문예출판사, 1975.
- _____,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 리타 펠스키,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M.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88.
- 버지니아 울프, 「자기혼자만의 방」, 『여성의 권리』, 문학과지성사, 1981.
- 시몬느 드 보부아르, 강명희 역, 『제2의 성』, 하서, 1996.
- 에른스트 피셔, 한철희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 1984.
- 엔터니 기든스,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 _____,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 팜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R. V. Johnson, 이상옥 역, 『심미주의』, 서울대출판부, 1979.
- Setha Mlow · Erve Chamber 편저, 주거문화연구회 역, 『주거·문화·디자인』, 신평, 1994.

Abstract

Gender-identity in Korean Modern Novel from a View Point of a Woman's Room and Household Commodities

Lee, Mi-Rim

Since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modernization, with formation of consumption society, the women have experienced spatial imaginations about a room of one's own and symbol of household commodities. Women tend to define a house or a room as a means of self-reflection and self-expression.

Because of husbands' indifference and impoliteness, women in home life have no external communication and become psychoneurotic. Consequently they are conscious of a solitude, pain and alienation as an objective other.

The women have topophilie of interior decoration in room, due to the lack of love and faith. But the home is described by 'a grave'. The household commodities, such as a candle, a dry flower, a pencil, a cigarette, washing drying stand, a picture case, a desk, symbolize her crisis and instability. Especially women search for self-identity through a desk.

Women not having 'a room of one's own' deviate from a house. They are addicted to drinking, smoking, writing, traveling, a love affair, immorality. Topophilie and deviance are connected with consumption style in a post-capitalist society. In conclusion, the former satisfies stability and oneness' desire, the latter, newness' desire.